



# 사진의 재구성

절제된 아름다움. 아티스트 정승일이 추구하는 예술 세계는 심플하기에 오히려 더 심오하다.

에디터 | 김민정 · 디자인 | 이정우



Respective Positions\_East, Digital color print on foambord, 43x36cm, Ed,1/1, 2015





Respective Positions\_West, Digital color print on foamboard, 43x36cm, Ed,1/1, 2015







Respective Positions\_South, Digital color print on foamboard, 43x36cm, Ed,1/1, 2015





Respective Positions\_North, Digital color print on foamboard, 43x36cm, Ed,1/1, 2015







Respective Positions, Digital color print on foamboard, PET film, Painted wooden chairs, Dimensions variable, 2015

### 사진, 영상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정승일. 그의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올해 초였다. 송은아트큐브에서 열린 개인전 <본질로부터>를 통해 선보인 사진 작품은 단순하지만 이미지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강렬해 작가의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달의 표면 혹은 위성사진 같기도 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한 이미지는 사실 육면체에 가까운 석탄 원석을 사진으로 촬영해 여섯 개의 면으로 분할해 기록한 것. 2005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이래 현지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던 작가는 한국에 귀국한 후 갖게 된 첫 번째 개인전을 통해 자신의 전시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리고 전시를 지원한 송은문화재단의 모기업(㈜삼탄)의 주요 사업이 석탄이라는 사실에 주목했고, <본질로부터>를 탄생시켰다.

그는 엄밀히 말해 사진가는 아니다. 사진, 영상, 설치, 퍼포먼스 중 자신의 생각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해 작품을 구체화해 나간다. 2007년 처음 선보인 사진 작업 <아메리칸 뷰티>는 뉴욕의 마천루를 촬영한 뒤 하늘만 남긴 채 건물의 모습을 모두 지워버렸다. 작품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남겨진 하늘을 흑백으로 전환하고 그 이미지를 다시 180도 회전시키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하얗게 남겨진 공(空)의 세상이다. 또 다른 사진작업은 2009년에 발표했다. <하나의 사물>이라 명명된 이 시리즈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라이터를 해체해 부품의 일부를 아날로그 사진으로 기록했다. 사소한 소품의 일부도 아름다운 형태를 지니고 있고,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자신만의 역할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사진 설치 작업에 숨겨진 미학

정승일은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열리는 그룹전 <섬머러브>에서도 사진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송은아트스페이스 5주년을 기념한 특별전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송은아트큐브 전시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가들의 신작 및 미발표작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이 골자. 전시에 출품할 작품을 구상하며 그는 다시 한번 장소 특정적 작품을 구상했다. 그는 작품 기획 의도에 대해서 "〈섬머러브〉전이 아트스페이스 개관전 성격을 띠기에 장소성을 부각한 작업을 구상했다. 평소 갤러리 외관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봐 촬영을 한 뒤 그 갤러리 내부에 전시를 하거나 전시장 내부를 찍어서 외부에서 전시하는 방식을 고민했었기에 송은아트스페이스를 대상으로 동서남북

을 촬영한 이미지로 사진설치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촬영은 송은아트스페이스 옥상에서 진행되었다. 아트스페이스를 중심축으로 하여 동서남북으로 촬영한 사진을 액자로써 사용된 각 의자의 좌석 부분에 삽입하고, 등받이 부분에 거울 필름을 연결하여 전시장에 다시 동서남북으로 배치한다. 이는 전시장 외부의 공간을 전시장 안으로 끌어들이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고 전시장 내부의 공간을 확장한다. 상하좌우가 반전되어 인화된 사진 이미지와 거울 표면에 반사되어 왜곡된 이미지는 그 어떤 것도 실재적이지 않다. 실재는 촬영되어진 대상 그 자체만 있을 뿐이다. 빛을 반사하는 거울 표면들과 반사된 빛의 파편들은 공간을 확장하고 거울 표면에 반사된 공간의 이미지는 그 구조를 변형시킨다. 작품 제목은 <각자의 자리(Respective Positions)>. 그는 작품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본질은 오로지 단 하나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아름다운 자체를 보여주는 작업

<아름다운 기술. 미술은 어렵다. 익숙한 낯설과 낯선 익숙함. 예술가는 관찰자다. 순수한 미술을 하려면 순수하게 머물러라. 미술은 새로운 이미지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삶을 나누는 것이다. 시간은 흐르기에 의미 있고 값지다. 시간이 멈춘다면 모든 의미가 제로가 된다.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진다. 우주=공간-면, 우주=면-선...> 그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핸드폰 속에 빼곡하게 기록해 놓은 문장들이다. "미술은 정치도 아니고 사회운동도 아니다. 미술은 미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기술인 것이다. 미술을 미술로 하고 싶다." 항상 선한 것. 악하지 않은 것. 아름다운 자체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독일에서 먼저 주목한 아티스트 정승일의 비상이 시작되었다. MP

정승일 독일 뮌헨 국립조형예술대학 조각전공 마이스터실러 및 석사, 독일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주요 개인전으로 2011년 <1x1x1>(성바울 교회, 뮌헨, 독일), 2013년 <깨어 있으리>(스무다예석 갤러리, 울릉, 독일), 2015년 <본질로부터>(송은아트큐브, 서울)가 있다.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2012년 독일 비텐 박물관이 주관하는 빅스너 미술상 입선과, 바이에른 주 국무부-과학, 연구 및 예술분야 데뷔상을 수상했다.





# CHUNG SEUNG IL'S RECIPE

아티스트 정승일이 자신의 방식대로 기록한우리 주변의 이미지들.



- 1 국립현대미술관 맞은편에 자리한 숲 지대를 프레임 안에 가득 채워 흑백으로 촬영했다.
- 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외관의 한 부분에 햇빛이 드는 모습을 포착했다.
- 3 학동사거리 부근 호림아트센터의 지하층 출입구 부분. 공간에 빛이 새어드는 모습이 평소 찾던 빛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 4 빛이 드는 다층적 공간. 덕분에 공간 구조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다.
- 5 합정역 부근에 위치한 한 건물의 일부분. 당시 비슷한 위치에서 다른 각도와 거리감을 두어 촬영해 시각의 차이와 공간 구조의 다양성을 나타냈다.
- 6 신도시 임대건물의 빈 공간이 반사된 이미지로 인해 채워졌다.

